

업계 동정

● (주)씨케이에프 본사 사무실 이전

(주)씨케이에프 본사 사무실이 지난 2월 24일부로 다음과 같이 이전됐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1 퍼스트타워 8층

(분당구청 맞은편 구 김스클럽)

△ 전화 : (031)776-8500

△ 팩스 : (031)776-8501

● (주)에스씨에프 당진 공장 준공 및 인천사무소 이전

(주)에스씨에프((대표이사 김정인)는 지난 3월 22일 전·현직 임직원 및 김낙성 현 당진군 국회의원, 윤대섭 당진부군수, 김정호 사료협회장, 이희상 운산그룹 회장 등 외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첨단 시설비를 갖춘 당진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김정인 사장은 기념사에서 “국내 최초로 항생제라인과 무항생제라인을 설계단계부터 분리시켜 고객에게 더욱더 안전한 사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어 및 양견(EP)사료 등 특수사료 부문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최고수준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공장〉

△ 주소 : 충남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 660-1

△ 전화 : (041)363-6383~93

△ 팩스 : (041)363-6391~2

〈인천사무소〉

△ 주소 :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935-6 KT&G빌딩 407호

△ 전화 : (032)565-4545~49

△ 팩스 : (032)565-0466, 4570

● (주)우성사료

천안연암대학 축산장학금 전달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2월27일 천안연암대에 축산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축산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축산계열 김진구 학생을 비롯한 5명에게 총2,500,000원 수여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후원 할 계획이다.

우성사료는 2005년 부터 축산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20명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우성사료 조성복이사(제3사업본부장/천안공장)는 인사말에서 축산의 밑거름이 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우성사료는 앞으로도 산·학·계간 협력체제를 이뤄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등 축산발전을 위해 더욱더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성사료 조성복이사(왼쪽)와 권찬호 부학장(오른쪽)

한우 고급육 전용사료 출시

친환경 웰빙한우 고급육 전용사료 더(The)한우마루 탄생

비육우 사료시장의 연속 16년 1위, 고급육 업계의 선두주자인 우성사료가 40여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 오비히로 축산대학과 서울대 반추영양학실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더 한우마루 제품과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지난 3월 3일 첫 출시된 더 한우마루는 육량과 육질 면에서



업계 동정

탁월한 출현율을 실현함과 아울러 친환경 웰빙의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한우 쇠고기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파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급육 신제품을 출시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제품의 특성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손근남 이사는(축우 PM) “우리 한민족과 1만년의 역사를 함께 하여온 한우는 지난 20여년 동안 이른바 세계화의 삼각파고와 당당히 맞서 한우 고유의 맛과 육질의 차별화로 승부하여 왔으며, 또한 각종 외래질병과도 싸워 이겨 왔습니다. 그러나 숨돌릴 겨를도 없이 이제 겨우 시작단계인 FTA는 우리 밥상에 외국산 쇠고기를 올려놓을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으며, 친환경 웰빙의 물결로 소비자의 입맛뿐만 아니라 건강은 물론이고 가축의 웰빙까지도 우리 한우인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띠고 탄생된 제품이 바로 더 한우마루”라고 힘주어 말한다.

The 한우마루 제품의 특성을 요약하면, 최상의 쇠고기 생산을 위하여 마블링에 필요한 고급 에너지원으로써 식물성 천연보호지방을 기용하였고 비육중기에 비타민A의 함량은 낮추고, 보호비타민C를 특수 첨가하여 지방세포의 분화를 촉진, 섬세한 마블링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었다.

한우 한 마리가 보리 후레이크 200kg를 섭취하도록 디자인되어 유백색의 고급지방이 축적된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미량광물질인데 유기태 셀레늄과 아연은 물론 새로이 유기태 코발트와 크롬 및 비타민 E를 첨가하여 가축의 건강유지와 선홍색의 육색이 유통과정에서 더 오래 동안 보존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친환경 웰빙의 소비자 니즈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입식부터 출하까지 전 기간 동안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방추출물과 향토 미생물제제를 기용하였다.

이로써 항생제 내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농가에서의 오남용 소지를 없앨 수 있으므로 한우쇠고기의 브랜드파워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0여 한우 브랜드는 지역특성과 특산물과 결합한 컨셉이 대부분으로 소비층의 한계를 과제로 안고 있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신설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단체에 적합한 아이템을 제



공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쇠고기 생산 이력제의 국가 시스템 하에서 더 한우마루는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출시된 한우마루는 육질 1등급 이상 90%를 실현하여 고급육의 대명사로 호평 받아 왔는데, 여기에 보호비타민C와 보리 후레이크, 유기태 크롬과 코발트 등의 기능을 부가한 The 한우마루는 한우거세우 기준으로 28개월령에 출하체중 720kg, 육질 1+, 1++ 등급 2/3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여 일본의 화우와 필적할 최상품의 쇠고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성사료는 더 한우마루 신제품소개회의를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3월 16일 연암대학 웰빙관에서 시작하여, 3월 20일 전북 화산농협, 3월 21일 경북 의성에서 개최하였으며, 일본 오비히로 대학의 히다리 히사시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였다.

안성지역 비육우 세미나 개최

우성사료는 지난 3월 7일 안성소재 궁전웨딩홀에서 안성지역 비육우 사육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육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안성지역을 담당하는 성용경 부장(우성사료 축우담당)은 비육우 시장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하며 안성지역의 육우(홀스타인) 사육 율이 전국의 14.4%



에 해당된다고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급 출현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 곳으로 경쟁우위를 잡하기

위해서는 “장기비육을 통한 높은 지육율과 육질등급 향상을 통한 수익증가” 라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엄기웅 대표(안성대리점)는 안성지역 70개 농장의 사육특성을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최

업계 동정

근 송아지의 입식 일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입식과열로 인한 송아지 공급 부족을 꼽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입식 일령이 낮아질 경우 초기 증체율이 떨어지며 결국 출하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며 입식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양 프로그램과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문진산 박사(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과)의 송아지설사병 및 호흡기질병 방제대책이란 주제의 강의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동운 본부장(우성사료 천안지구)은 인성지역이 육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비육우 대학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 흥성사료공업(주)

유럽 최고의 사료연구소 네덜란드 스코트호스트(Schothorst Feed Research, SFR)와 전략적 기술제휴 맺어

흥성사료공업(주)(대표이사 정태원)는 유럽 최고의 기축영양 사료연구소 중 하나로 유럽 전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스코트호스트사료연구소와 전략적 기술제휴를 맺었다.

스코트호스트 연구소는 1934년 설립된 전문적인 기축영양 연구소로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연구성과와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의 많은 사료회사와 각 대학 그리고 초대형 농장에서 이 연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양사는 향후 주기적인 상호 방문 및 홈페이지 전용라인을 개설하여 스코트호스트 사료연구소의 선진자료를 제공받고 사료 개발 및 사양관리에 유용한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가장 안전한 사료 생산을 위해 '사료는 곧 식품이다(Feed is food)' 라는 신념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흥성사료는 이번 기술 제휴를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사료 개발을 통해 국내 축산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증대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 (주)삼양사

고객 중심 영업 결의

삼양사가 올해도 고객 우선주의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근 삼양사는 금년 목표 달성을 위한 'Challenge 330 Campaign' 회의를 갖고 모든 영업활동을 고객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강신우 BU장은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만족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며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신우 BU장은 세 가지 핵심과제 즉 고객 마인드 실천, 솔루션 판매 시스템 강화, 기술혁신을 기본으로 영업활동에 임할 것을 역설했다.

● 대상팜스코(주)

신제품 포커스 2,3호 출시

대상팜스코가 사료섭취량을 늘려 돼지 폐사를 줄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건 자돈사료가 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상은 최근 돼지 폐사를 줄이기 위해 사료섭취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 '포커스 2, 3호' 사료를 개발, 출시했다. 신제품은 대상이 지난해 'WSY 2.5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출시,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한 '포커스 젓돈/육성돈'의 맥을 잇는 자돈사료로 섭취량 증가는 물론 질병 예방 효과도 탁월해 또 한번의 인기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 순회 릴레이 세미나 개최

대상팜스코가 전국 순회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모든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서자 양돈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들어 부쩍 이른바 4H(돼지만성소모성질병)로 인해 양돈농가의 생산성

업계 동정

저하는 물론 심지어 양돈장이 폐쇄에 이르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

대상팜스코는 지난 2월7일 전북대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양돈농가들이 최근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정보를 함께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영철 소장(정P&C연구소)은 'PMWS예방은 철저한 모든 관리로 부터'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양돈산업은 엄청난 위기"임을 진단하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임채웅 교수(전북대)는 '전라도 지역 내 비육단계에서 발생하는 질병 사례 분석'이라는 발표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방법을 소개했다.

김홍집 박사(우리생명과학)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통해 소모성질병이 발생하는 농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로 여름이 지난 후 공태돈을 보충하기 위해 망한 농장에서 임신돈을 입식한 경우와 검증받지 못한 종돈장에서 후보돈을 구입했거나 위생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일반 농장에서 자돈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환돈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치가 늦었거나 기본적인 관리에 소홀히 한 경우가 공통적인 사항임을 지적했다.

김유용 교수(서울대)는 '초산 모돈의 영양 관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낮은 생산성의 원인은 종돈과 사료영양보다는 사양관리이며, 특히 임신돈 단계부터 체형에 따른 급여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CJ(주)

CJ(주)는 지난 2월6일 충남 성환에서 70여명의 사양가를 대상으로 '낙농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CJ(주) 김무진 축우PM의 낙농시장의 시황과 전망을 시작으로 CJ의 낙농전문가인 박철규 지역부장이 젖소의 영양관리(간, 영양대사, TMR)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박 지역부장은 "폐업농가의 증가, 농장의 대형화, 낙농시장 축소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능력우 관리가 필수요소이며 사양가들의 고능력우 관리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습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농림부-축산단체, 인천공항서 ‘국경검역 캠페인’

민·관이 함께 구제역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농림부와 축산단체는 지난 3월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구제역 국경 검역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를 비롯해 정부와 축산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



로써 구제역 발생을 미리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이웃 국가인 중국을 비롯 이스라엘,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여러 곳에서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그 어느때 보다 질병방역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제역 예방에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도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여행객들에게 구제역 예방법을 알리고 치아클리너, 칫솔, 책자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한 CIQ내 발판소독조, 세관 X-ray, 검역탐지견, 합동검사대, 휴대품 개봉검사, 불합격품 처리 등 검역실태를 시찰했다.